

#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체험 운영

### 탐방객 20여 명 담양읍 삼다리·월산면 월산마을 방문 "모두가 즐기는 치유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담양군은 지난 18일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담양 대나무밭을 직접 경험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농업유산 마을해설사,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와 함께 '담양 대나무밭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탐방객 20여 명이 농업유산 핵심마을인 담양읍 삼다리와 월산면 월산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농업유산해설사의 마을에 대한 설명과 죽로차 다도체험 대나무를 이용한 굴렁쇠 만들기, 대나무숲 산책로에서 즐기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등 가족이 함께 대나무와 교감할 수 있는 체험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의 피드백을 토대로 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해 관광객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이 국민 모두가 즐기는 치유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장성군, 군민과 함께 편백나무 3000여 주 식재

장성군이 21일 장성읍 성산리 밭등마을에서 제78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장성군민, 산림단체 회원을 비롯해 김한중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군의원, 공직자 등 200여 명이 동참해 2년생 편백나무 묘목 3000여 주를 식재했다.

장성군은 국내 최대 인공조림지인 죽령산 편백숲으로 유명하다. 편백나무는 항균물질인 피톤치드를 소나무보다 4-5배 가량 많이 배출한다.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명산인 백암산, 불태산 등 전체 면적의 61%가 임야일 정도로 숲과 나무가 많다.

군은 이같은 장점을 활용해 조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기준 118ha(헥타르) 규모에 이른다. 숲가꾸기 사업 성과도 뛰어나다. 지난해에는 제봉산 편백조림지가 산림청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2021년 최우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화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2023년 1월 1일 기준~4월 10일까지

화순군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883호의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 및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www.kras.go.kr)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고교생 안전한 귀가 지원 야간 귀가 차량 운행 사업 시작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올해도 3월 새 학기 출발과 함께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귀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귀가 지원 사업'은 학교와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주소지를 둔 지역 청소년들이 야간 자율학습 이후 귀가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

야간 귀가 지원 대상자는 매년 각 학기 시작 전인 3월과 8월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된다.

지난해에는 곡성고 397명, 옥과고 540명으로 총 937명의 청소년들에게 귀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올해는 곡성고 6명, 옥과고 19명으로 총 25명이 신청했다.

귀가 차량은 총 5대(곡성 2대, 옥과 3대)가 운행되어 지원한다. 곡성 권역은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옥과 권역은 옥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된다.

곡성=양혜영기자



## 나주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오감터치 '베이비 마사지 교실' 호응

생후 3~8개월 성장 발육 도움...아기와의 정서적 교감·육아 자신감 키워

나주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감터치 베이비 마사지 교실'에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된 초보 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센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생후 3~8개월이 된 아기의 성장발육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아기 맞춤형 마사지 교실이다.

상반기(3~6월), 하반기(9~11월)로 나누어 전문강사 지도 아래 산모와 아기 15쌍을 대상으로 주 1회 진행된다.

마사지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성장 발육에 큰 도움을 준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기 면역력 향상과 소화 기능, 숙면, 촉각 발달 등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마사지를 통한 아기와의 정서적 교

감은 물론 참여자 간 육아 경험 공유를 통해 육아 자신감과 역량을 키우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마사지와 더불어 육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제 막 육아가 시작된 엄마들에게 유용한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친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베이비 마사지 교실과 더불어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공예 아기용품 만들기 등 '아기마중 DIY 임신부 태교 교실', 숲 산책과 명상을 통해 건강한 태교를 돕는 '숲 태교 부부 출산교실' 등을 3~11월 운영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 구례군, 초등학교 개학기 교통안전 캠페인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단속 및 캠페인 전개



구례군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21일 구례북초등학교 정문에서 구례군청, 구례경찰서,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구례북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합동 교통안전 캠페

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50여 명이 참여해 "등하교 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 살피고! 건너요!" 등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리플릿과 홍보 물품(투명우산)을 배부했다.

김순호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정비 등으로 스쿨존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